

追 悼 文

雲漢 朴東源 教授
(1942~1987)



許 宇 宣*

우리나라의 自然地理學界에 많은 공헌을 쌓던 雲漢 朴東源교수는 1987년 4월 15일 뜻하지 않은 肺出血로 서울大學病院에서 手術治療 하였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入院 한달여만인 5월 17일 오전 3시 逝去하였다. 운명할 당시 45세로서 꽃으로 비유하면 滿開하여 芳香이 한껏 진동할 즈음에 쓰러졌으니, 실로 안타깝고 허망한 심경을 누를길이 없다.

故 朴東源교수는 1942년 5월 8일 慶尙南道 梁山郡 梁山面 中部洞에서 태어나 全羅北道 南原郡 雲峰에서 성장하고 名門 全州高等學校를 졸업하였다. 1960년 서울大學校에 입학한 이래 自然地理學을 專攻하여, 漢江의 河底地形研究로 碩士學位를 받았고 1971년부터 1974년까지 2년반 동안 獨逸에 유학하여 Hamburg大學校에서 Elbe江 河底地形에 관한 연구로 理學博士學位를 취득하였다. 朴東源博士는 留學 후 1975년부터 他界할 때까지 서울大學校 社會學科大學 地理學科 教授로 봉직하면서 연구와 학생지도에 전력하여왔다. 先生은 또한 行政分野에도 능력을 보여 서울大學校의 기숙사인 冠岳舍 舍監 및 副舍監長으로서 여러해 수고한 바 있었고, 돌아가실 무렵에는 地理學科長으로서 온갖 굵고 힘든 일을 맡았었다. 서울大學校 地理學科로서는 탁월한 行政家를 잃었으니 그 손실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故人은 學者로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는 매년 여러 편의 논문과 보고서를 내었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여러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그의 저술활동에 대한 의욕은 경탄할만 하여 지난 봄 몸져 누웠을 때에도 수술의 통증을 참아가며 원고를 정리하는 열성을 보였다. 아마도 이와같이 病床에서 무리했던 것이 그의 병세를 크게 악화시켰던 원인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遺稿로서는 譯書「地理學的 觀點에서 본 環境問題와 環境保護」가 지난 가을 출판되었고, 그 밖에「環境地理學—環境問題에 대한 地理學的 接近」(大宇學術叢書), 「自然地理調查法」(共著), 英語版「韓國地理」(共著)가 미지않아 출간될 예정이다. 地理學界 書籍이 태부족한 우리나라 현황을 감안할때, 그 동안의 연구업적을 정리하여 더 많은 地理書를 펴낼 유능한 학자를 잃은 것은 아쉽기 그지없는 일이다.

先生은 그의 碩博士課程시절에 늘 河川地形분야를 전공하였었으나, 서울大學校 교수시절 부터는 海岸地形·古氣候·環境問題 등 여러 부문에 관심을 보여왔다. 海岸地形분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西海岸의 砂丘와 干潟地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고, 海岸砂地의 利用과 開發方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古氣候분야에서는 遺積地의 古環境·地形研究를 통하여 自然地理學과 考古學의 연결을 꾀했으며, 그의 指導學生들로 하여금 第4紀의 氣候와 海水面變動에 관해 연구하도록 독려하여 여러편의 碩士論文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先生은 또한 環境問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앞서 인접한 책들을 저술한 외에도 여러 편의 論文과 短報를 발표하였으며, 自然保存協會의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濟州島를 위시한 여러 섬들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내는 등 많은 업적을 쌓아 왔었다. 朴教授는 自然

* 서울大學校 社會學科大學 地理學科 教授

地理學의 研究方法論에서 累積觀察에 의한 신빙성있는 자료수집, 자료의 計量的分析을 통한 客觀性的 확보 등 科學的 研究方法를 강조하였다. 先生은 또한 自然地理學의 純粹科學的 側面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應用面도 중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自然地理學의 폭을 넓히려 힘썼다.

學者로서의 朴東源교수를 평가할때, 그가 大韓地理學會에 남긴 공헌을 빼놓을 수 없다. 故人은 1976년 學會 編輯委員으로 選任된 이래 他界할 때까지 계속 留任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2년 임기의 編輯部長職을 네번이나 맡았고, 1982년부터 2년간은 總務部長으로서 學會의 살림을 꾸려나가기도 하였었다. 學會誌「地理學」이 이년까지 모두 36호가 발행되었는데 이중에서 제14호부터 제35호까지 무려 22호의 발간에 그가 관여하였으니, 故人의 습은 봉사가 「地理學」이 오늘날과 같이 훌륭한 學術誌로서 자리잡게 되는 건인차 구실을 하였다고 말하여도 과장이 아닌것이다. 大韓地理學會는 또한 建設部 國立地理院의 용역사업으로서 「韓國地名要覽」(1982)과 「韓國地誌」總論篇(1980), 地方編 I~IV(1984~1986)의 여섯권의 地理書를 발간한바 있었는데, 이 사업의 대부분이 故 朴東源 교수가 編輯·總務部長으로 在任하는 동안에 이루어진것이였다. 先生은 다른 學會에도 적극적인로 참여하여, 第四紀學會의 理事職을 맡았었고, 韓國遠隔探查學會의 창립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理事 編輯委員으로 수고하였다. 그는 또한 國際地理學聯合(IGU)의 Commission on the Coastal Environment, 國際 第四紀學會(INQUA), 日本第四紀學會, American Geophysical Union, 日本地形學連合 등의 會員으로서도 활동하여 관계학술지에 기고하기도 하고 국제회의에 자주 참석하곤 하였다. 先生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면 韓國 地理學界가 이들 國際·外國學術團體들과의 학문적 유대를 맺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故人은 평소 매우 부지런하여 틈이 날때면 언제나 野外踏査를 다니곤 하였다. 그는 산과 들도 다니는 동안 다져진 체력으로 누구보다도 건강하였었는데 뜻하지 않게 急逝하였으니 하늘의 조화는 알 길이 없다. 先生은 매우 검소하여 분에 넘치는 일을 보면 충고를 잊지 않았으며, 메모지 한장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서류철에 보관하는 치밀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朴東源교수는 또한 온화한 성품을 지녀 학생들이 잘 따르곤 하였고, 學內外로 폭넓은 交分을 가지고 있었다.

先生은 이제 幽明을 달리 하였으나, 그가 地理學界에 남긴 많은 공적은 두고두고 남아 地理學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질것이며, 그가 못 다 이룬 일들은 後學들이 받들어 이어나갈 것이다. 세월은 흐르나 先生의 勤儉함은 우리의 표본으로 항상 남아, 행여 자세가 흐트러질때마다 훈계의 채적이 되어줄 것이다. 삼가 先生의 冥福을 빌며, 미망인 文熙子여사와 두 아들 正宰 民宰군에게 하늘의 보살핌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한다.

朴東源 教授 年譜

- 1942. 5. 8 慶尙南道 梁山郡 梁山面 中部洞 243番地에서 出生
- 1960. 2. 26 全州高等學校 卒業
- 1960. 4. ~1964. 2.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地理學科(文學士)
- 1964. 3. ~1967. 8. 서울大學校 大學院 地理學科(文學碩士)
- 1967. 9. ~1969. 3. 서울大學校 助教
- 1969. 3. ~1971. 8. 서울大學校 講師
- 1971. 9. ~1974. 2. 獨逸 Hamburg大學校 大學院 地理學科(Dr. rer nat.)
- 1974. 3. ~1975. 4. 서울大學校 講師
- 1975. 4.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專任講師
- 1976. 6. ~1987. 5 大韓地理學會 編輯委員
- 1976. 12. ~1982. 5. 大韓地理學會 編輯部長

1977. 4. 서울대학교 社會科學大學 助教授
 1978. 6. ~1978. 9. DAAD 招請 獨逸地理學界 探訪
 1979. 2. ~1979. 3. 福岡教育大學 招請 日本 九國地方 海岸地形研究
 1979. 8.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東南亞地域科學會議 海岸地形 workshop 參席
 1980. 8. 日本 I.G.U. 23次 總會參席
 1980. 9. ~1983. 2. 서울대학교 冠岳舍 舍監
 1981. 4. 서울대학교 社會科學大學 副教授
 1982. 5. ~1984. 5. 大韓地理學會 總務部長
 1982. 7. 소련 第11次 國際第四紀學會(INQUA) 參席
 1982. 11. 泰國 遠隔探查關係 國際會議 參席(亞細亞 工科大学)
 1983. 2. ~1985. 2. 서울대학교 冠岳舍 副舍監長
 1983. 12. 泰國 방콕 I.G.U. 3rd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f Geomorphology of Rivers and Coastal Plains 參席
 1984. 5. ~1986. 6. 大韓地理學會 編輯部長
 1984. 9. 프랑스 I.G.U. 심포지엄 9; Commission on Coastal Environment 參席
 1984. 12. ~1987. 5. 韓國遠隔探查學會 理事겸 編輯委員
 1985. 3. ~1987. 5. 韓國 第四紀學會 理事
 1986. 4. ~1987. 5. 서울대학교 社會科學大學 教授
 1986. 6. ~1987. 5. 大韓地理學會 編輯委員
 1987. 5. 17 別世

論 文

- 1967, “漢江礫의 圓形度와 形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論文.
 1968, “漢江礫의 圓形度에 관한 研究,” 「地理學」第3號, 11-18.
 1969, “漢江의 河床變化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文理大學報」第13卷, 171-183.
 1974, “Flußmorphologie im Süßwasserbereich der Unterelbe (Elbe Km 650-670),” *Hamburger Geographische Studien*, Sonderheft, 1-157.
 1975, “우리나라 西海岸의 干潟地類型,” 「地理學會報」第14號, 1-9.
 1975, “獨逸 Elbe江 河口의 河底地形,” 「駱山地理」第3號, 45-61.
 1976, “佛影寺溪谷의 自然地理,” 韓國自然保存協會, 「調查報告書」10, 21-30.
 1976, “地形學,” 「地理學」第13號, 7-12.
 1977, “遠隔探查方法에 의한 淺水灣 干潟地 地形研究,” 「地理學」第15號, 1-15.
 1977, “河系網과 地質構造線의 關係에 對한 研究,” (共著), 「駱山地理」第4號, 7-16.
 1978, “臨溪地域의 自然地理” (共著), 韓國自然保存協會, 「調查報告書」13, 41-57.
 1978, “戰後獨逸의 地理哲學,” 「地理學論叢」第5號, 15-28.
 1979, “우리나라 西海岸의 砂丘地形,” (共著), 「地理學論叢」第6號, 1-11.
 1979, “七甲山과 溪龍山의 地形,” (共著), 韓國自然保存協會, 「調查報告書」17, 51-62.
 1979, “1950年代 以後 西部유럽의 地理學 方法論에 對한 研究,” 「地理學」第20號, 63-82.
 1979, “新地形學,” 「地理學과 地理教育」第9輯, 236-245.
 1979, “Sea Level Variations and Their Impact on Coastal Geomorphology in the Western Coast of Korea,” *Workshop on Coastal Geomorphology*, Singapore and Malaysia, 1-7.

- 1980, “우리나라 海岸砂地の 利用開發에 관한 研究,” (共著), 文教部政策課題報告書, 1-83.
- 1980, “古群山群島의 地形,” 韓國自然保存協會, 「調查報告書」18, 45-57.
- 1980, “천수만의 갯골 形態에 對한 計量的 分析,” 「地理學」第22號, 1-9.
- 1981, “鬱陵島와 獨島의 地形,” (共著), 韓國自然保存協會, 「調查報告書」19, 37-59.
- 1981, “大學院 地理學科 教育課程 發展을 위한 研究—地形學,” 「地理學論叢」第8號, 14-20.
- 1981, “原子力 9·10號機 용수원 建設事業 環境影響評價書,” 「韓國電力 報告書」47-57, 105-124.
- 1981, “濟州島의 波蝕臺에 대한 地形學的 研究,” (共著), 「地理學論叢」第8號, 1-10.
- 1982, “莞島 隣近島嶼의 地形,” (共著), 「自然實態綜合調查報告」第2輯, 自然保護中央協議會, 253-270.
- 1982, “BAM(Baikal-Amur Mainline)에 對한 地理學的 研究,” 「社會科學과 政策研究」第4卷 1號, 151-186.
- 1983, “스칸디나비아地域의 地理的 環境,” 「유럽研究」創刊號, 11-43.
- 1983, “전곡리 遺積의 古環境 및 地形調査,” 文化財 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報告文, 515-530.
- 1983, “韓國의 地形研究에 있어서의 問題點과 研究方向,” 「地理學論叢」第10號, 27-40.
- 1984, “慶州의 環境,” 「歷史都市 慶州研究」, UNESCO 韓國委員會, 108-119.
- 1984, “干拓에 의한 海岸環境變化와 그에 따른 住民의 環境知覺에 관한 研究,” (共著), 「祥明地理」第2號, 1-33.
- 1984,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patterns of the tidal creeks of the Chonsu-Bay, South Korea,” *Proceeding of 3rd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n Geomorphology of Rivers and Coastal Plains*, I.G.U., 98-104.
- 1984, “Artificial Structures and Shorelines, Korea,” *Report, Commission on the Coastal Environments*, I.G.U., 339-344.
- 1984, “가과도와 마라도의 地形,” (共著) 「濟州島研究」第1輯, 365-382.
- 1985,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World's Coastline*, ed., by E.C. Bird and M.L. Schwartz, Van Nostrand Reinhold Co. 833-841.
- 1985, “아프리카제국의 地下資源의 分布와 開發展望,” 「社會科學과 政策研究」第7卷 1號, 59-89.
- 1985, “金堤·井邑일대에 分布하는 퇴스상 赤黃色土에 對한 研究,” 「地理學」第32號, 1-10.
- 1985, “南漢江 流域에 있어서 地質構造線과 河系網의 關係에 對한 研究,” 「地理學論叢」第12號, 99-109.
- 1985, “海岸環境變化와 問題,” 「思想과 政策」第3卷 2號, 112-120.
- 1985, “Polder-Geist in Südkorea,” *Geo: Das neue Bild der Erde*, Nr. 4, 200-201.
- 1985, “The Change of Coastline Induced by Tidal Flat Reclamation in Korea,” *Actes Excursion-Symposium No. 9, La Côte Atlantique*, Union Geographique Internationale, Commission Sur l'Environment Côtier, 149.
- 1986, “韓國 南東部 海岸에 發達한 Shore Platform의 形態와 發達過程,” 「地理學論叢」第13號, 1-15.
- 1987, “The Loess-Like Red Yellow Soil of the South Western Coastal Area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e Loess of China and Japan” *Geojournal* Vol. 15, 197-200.

著 書

- 1979, 「고등학교 인문지리」, (共著), 文教部.

- 1979, 「고등학교 인문지리 교사지침서」, (共著), 文敎部.
 1979, 「고등학교 地理附圖」, (共著), 東亞出版社.
 1980, 「실업계 고등학교 경제지리」, (共著), 文敎部.
 1980, 「실업계 고등학교 지리교과 지침서」, (共著), 文敎部.
 1980, 「韓國地誌 總論」, 國立地理院, 172-177.
 1984, 「韓國地誌 I」, 國立地理院, 20-29;153-155;404-408. 「韓國地誌 II」 國立地理院, 441-443.
 1985, 「漢江史」, 서울市史編纂委員會, 25-40.
 1984, 「지리 I, II」, (共著), 東亞出版社.
 1986, 「韓國地誌 IV」, 國立地理院, 108-114.
 1987, 「自然地理調査法」, (共著), 敎學社.
 1987, 「地理學的 觀點에서 본 環境問題와 環境保護」, (譯書), (Walter Boeck著, Umweltbelastung und Umweltschutz in geografischer Sicht), 大韓敎科書株式會社.

其 他

- 1981, 「進化는 科學的 事實인가」, (共著), 韓國創造科學會編, 太陽文化社.
 1984, “變化하고 있는 우리國土,” 「우리얼」 5월호, 한국청소년 연맹, 54-57.
 1984, “운전자의 사명과 자세,” 「도로교통」 4월호, 18-22.
 1985, “구석기시대의 자연환경,” 「서울신문」 2월 20일자.
 1985, “내일의 과제는 무절제에 의한 환경문제 대책,” 「에너지管理」, 9월호.
 1986, “우리나라의 해안,” 「과학동아」 2월호, 144.

遺 族

妻	文熙子
長 男	正宰
次 男	民宰